

생명의 말씀

소망의 꿈

(행 2:17)



구영근 목사

· 교단 경기동부지방회장
· 수경순복음교회 담임

사람은 꿈과 비전이 있어야 성공할 수가 있고 큰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도산으로 대재벌 회사마저 속속 문을 닫고 있으니 나라의 장애를 어떻게 느껴집니다. 젊은이들은 나날이 미래에 대한 꿈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의 공통점은 꿈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공적인 삶을 살려면 위대한 꿈을 간직하고 밝고 보다 나은 미래를 창조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면 꿈의 실현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첫째로, 비전을 가져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2:13에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라고 했습니다. 신앙의 위인들은 대부분 꿈과 비전을 지닌 사람들이었습니다. 히11:1-2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고 했습니다.

다. 믿음으로 믿음 속에 미래를 꿈꾸며, 말하고 행동하며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요즘 모두들 경제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나 정치거나 경제학자나 어려운 것만을 알뿐이지, 누구하나 어떻게 극복할 수 있다는 대안을 제시하지 못합니다. 어느 책에 "꿈이 사람을 만든다"고 합니다. 꿈이 잉태되면 불타는 소원을 간직하고 이미 이루어질 실상을 확신하면 언젠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13:14-17에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그와 그후손에게 주시기 전에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황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창15:5)고 믿음의 실상으로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과 자식을 주실 때에도 땅과 네 자손이 어떻게 많아질 것을 상상해보도록 하셨습니다. 이 세상은 꿈과 비전을 가진 사람들에게 의해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개인이나 민족이나 꿈과 비전을 가질 때 꿈꾸던 세계가 이루어집니다. 요셉은 꿈 때문에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꿈꾸는 자"라는 별명을 가진 요셉은

꿈을 가졌기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기도 했지만, 꿈과 비전을 간직하고 노예살이를 하면서도 꿈을 꾸며 살았습니다. 요셉은 사소한 일이나 어려운 일에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 성도들에게 먼저 꿈을 잉태케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꿈을 심어주십니다. 성경은 궁정의 꿈을 심어주셔서 교회로 새 생명을 얻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천국에 대한 꿈을 갖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렘33:3)고 말씀하셨습니다. 꿈의 실현을 위해 꾸준한 기도하면 그것이 현실로 다가올 것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꿈과 비전을 간직하시기 소원합니다.

둘째로, 꿈의 실현을 위한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1. 분명한 목표를 설정해야 합니다. 인간은 목표를 추구하는 존재입니다. 성공적인 삶을 살려면 분명한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목표가 우리 앞에 있을 때 도전하게 되고 믿음 속에 강한 집념과 동기가 끓어오릅니다. 목표는 우리에게 꿈과 이상을 지시해주고 그곳으로 향해 갈 수 있는 길잡이의 역할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3:13-14에서 "형제들이 나는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꾀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좇아가지"고 했습니다. 이와같이 목표를 가지고 노력하는 자는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2. 긍정적인 생각과 말을 해야 합니다.

인간에게는 적극적인 면과 소극적인 면이 있습니다. 어떤 선택 여하에 따라 인생의 선풍대가 가뭄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말며 위에 앉고 아래에 있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꿈을 실현시키려면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긍정적인 말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적극적인 신앙인과 함께 하십니다. "나도 할 수 있다"는 결단이 우리 생애를 놀라게 변화시켜 줍니다. 긍정적인 생각은 하는 사람에게 행통의 길이 열립니다. 생각은 행동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막 9:23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나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하신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라도 "나는 성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바꾸어봅시다. 빌4:13에서 사도 바울은 "내가 능히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고백하였습니다. "할 수 있다"는 생각을 지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면 그 말

하는 것이 이를 줄 믿고 믿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막11:23)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일으켜 말한 대로 이루어진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3. 희생의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성경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둔다 하였습니다. 최후의 승리는 참고 기다릴 줄을 아는 사람입니다. 꿈의 성취에 필요한 열쇠가 있다면 그것은 인내라고 하였습니다. 약1:4에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25년의 인내의 생활을 걸쳐서 드디어 신앙의 정상에 올라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하8:14-15에서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였더니 내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는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습니다. 요셉은 고난의 세월을 겪으면서 꿈과 비전을 잊어버린 적이 없었습니다. 결국에는 애굽의 국부총리가 되었습니다.

시련하는 여러분! 어렵고 답답한 일이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낙심치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언젠가 꿈을 간직하고 믿음을 지켜 나가면 하나님은 만사행통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가 꿈을 간직하되 세속의 목표를 위해 기도의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막11:24)고 하셨습니다. "나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렘33:3)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꿈의 실현을 위하여 결단하셔서 만사행통의 길이 반드시 열리게 되시길 간구합니다.

동정

창조문예문학상 현길연 소설가 선정



월간 창조문예가 제정된 제9회 창조문예문학상 수상자로 장편소설 '숲의 왕국'의 현길연 소설가가 선정됐다. '숲의 왕국'은 나무들이 평화로운 숲에 왕국을 건설하면서 벌어진 한비탕 소동을 그린 우화다. 창조문예문학상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리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할 기독교 문인을 발굴하고 주목할 만한 문학적 성취로 기독교 문화 창달에 기여한 문인을 선별해 격려하고자 2006년에 제정됐다.

합신대 신임총장 조병수 교수 선출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이사회는 지난 달 30일 이사회를 열고 민정일치로 4년 임기의 차기 총장에 조병수 교수(합신 신약신학)를 선임했다. 총신대와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를 졸업한 조 신임총장은 독일 뮌스터 대학교에서 신학부 신학박사 학위를 이수했다. 이후 1995년부터 합신대에서 교편을 잡은 그는 학생처장, 교무처장, 목회대학원장을 역임했다.

성결대 학위수여식



성결대학교(총장 주삼식)는 지난 14-15일 양일간 6개 단과대학별로 성결대 기념관에서 약 2천여 명의 학생, 학부모, 교직원과 내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2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을 개최했다. 주삼식 총장은 대학원 108명, 단과대학 967명, 평생교육원 7명 등 총 1,082명의 졸업생 전 원에게 직접 학위를 전달했다.

기성 성결인대회



기독교대한성결교회(총회장 박현모 목사) 성결인대회가 오는 4월 20일 충남 천안 유관순 기념 체육관에서 개최된다. 이번 성결인대회는 4월 19일 성별회 및 선교대회를 시작으로 성결성 회복과 성결의 은혜를 간구하는 성결인대회와 목사인사수식 등으로 진행된다.

논평

이억주 목사 // 한국교회언론회 대변인



불교 언론의 소모적이고 이중적인 잣대

2월 13일 박근혜 당선인은 새 정부에서 일할 6개 부처의 장관 후보자를 발표하였다. 국민들은 후보자들이 대체적으로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안정되게 국정을 운영해 나갈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런데 때를 맞춰 불교계 언론에서는 장관 후보자들의 종교를 밝히면서, 교육부장관과 국방부장관 후보자가 독실한 불교 신자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교육부장관에 내정된 서남수 총장은 불교계 학

교인 위태대 총장이다. 또 국방부장관 물망에 오른 김병관 후보는 국군불교총신도회 회장을 역임했고, 2007년에는 조계종에서 수여하는 '불자대상'을 받았다고 자랑한다. 불교 언론은 또 7일에는 김진태 대검찰장이 검찰총장 후보에 추천되었다고 보도하고 있다. 김 후보자는 '수월 선사'의 일대기를 다룬 책을 출간할 정도로 불심이 깊고, 불교 전문지로 꼽힐 정도의 법조인이자

는 것이다. 여기까지는 불교계의 자랑으로 봐줄 대목이다. 그런데 장관 후보자 기사와 맞물려서, 정홍원 국무총리 후보자와 황교안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골수 기독교인이며, '종교편향'의 우려가 있다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내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국가를 위해 봉사할 고위 공직자들이 불교계 인사이면 '오케이'가 되고, 기독교인이면 종교편향 우려가 있어

안 된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고위 공직자를 선출하는데 어찌 종교가 기준이 되겠는가? 공직자의 종교는 개인의 자유이고 중요한 것은 능력과 공직자로서의 자질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정부가 공직자를 선출할 때마다 종교가 지나서서 공직자의 '종교'를 문제 삼아 공격하는 것은 정부에 대한 부당한 압력이며, 국민에 대한 모독이다. 불교계 언론은 지난 2011년에는 MB 정권에서의 장·차관급 72명 가운데 불자가 7명이고, 기독교 신자가 29명으로, 기독교계 인사가 월등히 많다고 보도하였다. 이것을 '종교편향'으로 몰아간 것이다. 그러나 어불성설(語不成就)이다. 기독교인 공직자가 많다고 하여 기독교를 위해 협조하거나 편향한 일도 없고, 오히려 현 최광식 문광부장관과, 불교 언론이 천주교인으로 분류한 정영국 전 문광부장관은 불교계를 돕기

위해 헌신의 노력을 다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제 종교계에서 이런 공직자 인선을 개인의 종교를 두고 '선긋기' 하는 것은 중단해야 한다. 오히려 이런 분례의 원인은 불교계에 있음은 알아야 한다. 기독교는 조선이 망해가는 시점부터, 기독교 학교를 세워 민족을 깨우고, 인재들을 키우고, 민족과 국가 발전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는데 헌신한 것이다. 우리 국가의 미래는 국민들이 얼마나 단합하고, 소통하고, 통합하느냐에 달려 있다. 특히 종교계의 역할이 필요하다. 그런데 종교계가 지나치게 종교 외적인 면에 치중하고, 공직자 개인의 '종교'와 '신앙'을 비난의 꼬투리로 삼아 인신공격을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을뿐더러, 국가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본다.

Advertisement for 'The Promise' mobile app. Features include: '신앙생활을 더 스마트하게!', '언제, 어디서나 말씀을 읽고 들을 수 있는 전자성경책, 찬송가 전곡을 원음으로 듣는 은혜로운 오디오찬송가, 새벽기도와 구역예배 때 반주자를 대신할 수 있는 찬양반주기, 크리스찬의 신앙생활을 돕는 교회생활백과와 기독교방송채널, 주보와 전도지를 대신할 수 있는 우리교회 모바일홈페이지, 평생어학교육이 가능한 단어 자동암기 어학학습기와 회화사전, 이 모든 기능이 크리스찬폰에서 제공됩니다.' Includes a list of 6 benefits and a list of compatible devices (Samsung Galaxy S2, LG Optimus S2, SKY BeGaios, etc.). Contact info: 1588-9758.